

四象體質分類檢査의 准据妥當化 研究 (성격요인(16PF), 성격유형검사(MBTI)와의 비교분석)

趙鏞台* 高炳熙* 宋一炳*

서 론

四象醫學은 東武 李濟馬 先生이 1894年 그의 儒敎哲學의 바탕에서 착안하여 체계화시킨 體質醫學이다. 이제마의 四象哲學의 學問의 背景은 儒學의 好善惡惡과 知人 正己에서 그 目的을 찾을 수 있고 이는 孟子의 不動心과 求放心의 治心正己 사상에서 나왔다. 4). 15). 16) 儒學에서의 修己는 인간의 本性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조선 성리학에서 연구하였던 心性, 氣, 理 등에 대한 연구가 이제마에게 영향을 주었다. 당시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유학을 修己뿐만 아니라 養心の 治人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 해석하고 있었고, 20) 이제마 또한 그의 四象哲學을 완성하여 治療 예방에 까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이제마에게 있어서 心性은 人身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性命論>에서 그는 心性이 人體의 四象構造와 결합하고 있는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었고, 이는 <四端論>에서 人稟臟理와 太少陰陽의 性情과의 관계설정으로 이어져 四象體質醫學理論으로 발전하였다. 16)

四象醫學에서 人間の 本性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양에서도 人性에 대한 탐구는 나름대로 발전하였다.

성격유형검사(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C.G. Jung의 성격유형이론을 근거로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한 인간 이해에 유용한 도구이다.⁵⁾ 그리고 성격요인검사는 현재 세계각국에서 개발된 검사중에서 가장 오랜 연구적 배경을 갖고 있고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 가운데 하나이며 그 요인의 수가 일차 요인만 16개에 달하여 거의 모든 성격범주를 다 포괄하고 있다. 결국 사상의학의 診斷方法은 人間の 本性에 대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하고 氣의 運用을 살펴야 한다.

이에 本 研究는 金⁷⁾의 사상체질 분류검사설문의 당도를 연구한 이의 논문²³⁾과 고의 연구¹⁾를 검증해 보고 MBTI(성격유형검사)를 추가하여서 비교 분석한 결과 有意한 결과가 있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被驗者

경희 대학교 한의과 大學부속 한방병원 사상의학 진료실에 來院한 一般환자와 한의과, 간호과 대학생을 관찰 대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被

* 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四象醫學敎室

驗者는 513명이고 남자 333명 여자 180명이었다.

本 研究에 포함된 사례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性別에 따른 교육정도를 보면(표1), 국졸은 남자가 0.3%, 여자는 5.4%였으며, 중졸은 남자가 1.0%, 여자는 6.6%였으며, 고졸은 남자 10.4%, 여자

19.3%였으며, 대졸은 남자 87.7%, 여자 68.1%였으며 대학원졸은 각각 0.6%였다.

한편 性別에 따른 여부(표 2), 직업(표 3) 등의 분포는 아래에 제시한 표와 같았다.

〈표 1〉 피험자의 상별에 따른 교육현한

학력 성별	국민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합
男	1 0.3	3 1.0	32 10.4	271 87.7	2 0.6	309 65.1
女	9 5.4	11 6.6	32 19.3	113 68.1	1 0.6	166 34.9
합	10 2.1	14 2.9	64 13.5	384 30.8	3 0.6	475 100.0

〈표 2〉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결혼상태

결혼상태 성 별	기 혼	미 혼	별 거	사 별	이 혼	동 거	합
男	55 17.3	260 81.8	1 0.3	1 0.3	1 0.3		318 64.8
女	55 31.8	113 65.3	1 0.6	3 1.7		1 0.6	173 35.2
합	110 22.4	373 76.0	2 0.4	4 0.8	1 0.2	1 0.2	491 100.0

〈표 3〉 피험자의 성별에 따른 직업분포

직업 성 별	전문직 및 행정직	연구 및 전문직	사기업 경영	의료 보건업	공업 및 기술직	종교 관계업
男	11 4.5	13 5.3	12 4.9	32 13.1	4 1.6	1 0.4
女	3 1.9	22 14.0		15 9.6		
합	14 3.5	35 8.7	12 3.0	47 11.7	4 1.0	1 0.2

성 별 \ 직업	농수산업	예술 및 체육	서비스직	주 부	단순노무직	학생 및 무직	합
男	3 1.2	2 0.8	5 2.0		1 0.4	160 65.6	244 60.8
女	1 0.6	1 0.6	5 3.2	38 24.2	1 0.6	71 45.2	157 39.2
합	4 1.0	3 0.7	10 2.5	38 9.5	2 0.5	231 57.6	401 100.0

2. 研究方法

1). 檢査內容

本 研究는 四象醫學의 체질분류의 객관화를 위한 시도의 하나로써 위의 전체 피검자 513명에게 金⁷⁾ 四象體質分類檢査 설문지 및 성격요인검사 설문지, 성격유형검사 설문지를 同時에 作成하도록 아래의 방법으로 통계처리하였다.

2). 統計處理方法

四象尺度들의 성격요인검사 및 성격유형검사와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個別집단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 간의 상관관계

〈표 4〉전체집단의 四象尺度와 MBTI간 상관관계 (N=513)

MBTI 차원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내향-외향	-0.5268**	-0.0963	0.0447	0.5531**
감각-직관	-0.1326*	-0.1113*	0.1082*	0.0821
사고-감정	0.0751	-0.0857	-0.0172	0.0244
판단-인식	-0.1784**	-0.3168**	0.0366	0.2442**

*P<.01 **P<.001

1). 전체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 간의 상관관계 (표 4)

①太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의 否의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각-직관에서 P<0.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판단-인식에서 P<0.001, 감각-직관에서 P<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太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감각-직관에서 P<0.01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④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2). 남자 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간의 상관관계(표 5)

①太陽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陽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 (감각-직관에서 $P<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陽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陽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 사고-감정에서 $P<0.01$ 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太陰尺度와의 상관관계

특별한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④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여자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간의 상관관계(표6)

①太陽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陽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에서 $P<0.001$, 판단-인식에서 $P<0.01$ 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陽尺度와의 상관관계

특별한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④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유형검사의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2. 四象尺度와 성격요인검사간의 비교분석

1). 전체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요인 검사간의 상관관계(표7)

①太陽尺度와 상관관계

太陽尺度는 성격요인 검사의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불신감, 사변성에서 $P<0.001$, 진보성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죄책감에서 $P<0.001$, 통제력에서 $P<0.01$ 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P<0.001$, 독창성 요인에서 $P<0.01$ 의 正的 상관

〈표 5〉 남자집단의 四象尺度와 MBTI간 상관관계(N=333)

MBTI 차원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내향-외향	-0.5300**	-0.1731**	0.0964	0.5507**
감각-직관	-0.1403*	-0.1242	0.1141	0.0680
사고-감정	0.0950	-0.1489*	0.0075	0.0406
판단-인식	-0.1768**	-0.3593**	0.0532	0.2312**

* $P<0.01$ ** $P<0.001$

〈표6〉 여자집단의 四象尺度와 MBTI간 상관관계(N=180)

MBTI 차원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내향-외향	-0.5298**	0.0050	-0.0378	0.5805**
감각-직관	-0.1312	-0.0508	0.0915	0.1042
사고-감정	0.0821	-0.0799	-0.0750	0.0241
판단-인식	-0.1933*	-0.2093*	-0.0035	0.2692**

* $P<0.01$ ** $P<0.001$

〈표7〉 전체집단의 四象尺度와 16PF 간 상관관계(N=421)

16성격요인 검사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일차요인	온정성	0.2530**	0.0209	0.0279	-0.3239**
	지능	0.0117	-0.0250	0.0295	0.0288
	자아강도	0.1988**	-0.1501*	-0.1771**	-0.2335**
	지배성	0.3759**	0.1567**	0.0104	-0.2139**
	정열성	0.5374**	0.2115**	0.0432	-0.4606**
	도덕성	-0.1110	-0.3123**	0.0032	0.3114**
	대담성	0.4267**	0.0386	-0.0660	-0.4233**
	민감성	-0.0096	0.0915	-0.0492	0.0448
	불신감	0.1643**	0.0558	-0.0148	-0.0740
	사변성	0.1800**	0.2237**	0.0073	-0.0263
	실리성	0.0211	-0.1587**	0.0165	0.0649
	죄책감	-0.2265**	0.2057**	0.2563**	0.3596**
	진보성	0.1436*	0.1295*	-0.0819	0.0816
	자기충족성	0.0905	0.0719	-0.0260	0.1140*
통제력	-0.1483*	-0.4070**	-0.0435	0.2212**	
불안감	-0.0729	0.1928**	0.2983**	0.3269**	
이차요인	외향요인	0.3743**	0.0641	0.0260	-0.4690**
	불안요인	-0.2471**	0.2388**	0.2829**	0.3917**
	강정성요인	-0.0335	-0.1366*	0.0412	-0.0348
	독립요인	0.4824**	0.1357*	-0.1031	-0.3924**
	초자아요인	-0.2173**	-0.4012**	-0.0052	0.3600**
	독창성요인	0.1281*	0.1310*	-0.0228	0.0418

*P<.01 **P<.001

관계를 보였으며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P<0.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陽尺度와 상관관계

少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지배성, 정열성, 사변성, 죄책감, 불안감에서 P<0.001, 진보성에서 P<0.01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성 실리성, 통제력에서 P<0.001, 자아강도에서 P<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격요인 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불안요인은 P<0.001,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에서 P<0.01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자아요인에서 P<0.001, 강정성요인에서 P<0.01의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太陰尺度와 상관관계

太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죄책감, 불안감에서

P<0.001의 正的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강도에서 P<0.001의 否的 상관을 보였다. 성격요인 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불안요인은 P<0.001의 正的 상관을 보였다.

④ 少陰尺度와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도덕성, 죄책감, 통제력, 불안감에서 P<0.001, 자기충족성에서 P<0.01

의 正的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에서 P<0.001의 否的 상관을 보였다. 성격요인 검사의 일차요인에서 이차요인을 추론하면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P<0.001의 正的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P<0.001의 否的 상관을 보였다.

2). 남자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요인검사간의 상

〈표8〉 남자집단의 四象尺度와 16PF 간 상관관계 (N=268)

16성격요인 검사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일차요인	온 정 성	0.2000**	0.0217	-0.0392	-0.3237**
	지 능	0.0420	-0.0656	0.0786	0.1096
	자 아 강 도	0.1800*	-0.1135	-0.2097**	-0.2100**
	지 배 성	0.3073**	0.1940**	-0.0362	-0.2056**
	정 열 성	0.5779**	0.2685**	-0.0491	-0.4767**
	도 덕 성	-0.1028	-0.2890**	0.0242	0.2743**
	대 담 성	0.4394**	0.1141	-0.1400	-0.4306**
	민 감 성	-0.0649	0.1000	-0.0247	0.0234
	불 신 감	0.1806*	0.0647	-0.0164	-0.0866
	사 변 성	0.1824*	0.2782**	0.0030	-0.0097
	실 리 성	0.0037	-0.0902	0.0412	0.0505
	죄 책 감	-0.2164**	0.2003**	0.3003**	0.3739**
	진 보 성	0.1450*	0.1081	-0.1449*	0.0857
	자 기 충 족 성	0.1417	0.0900	-0.0327	0.0940
	통 제 력	-0.1523*	-0.3661**	-0.0495	0.1963**
	불 안 감	-0.0015	0.2011**	0.3553**	0.2916**
이차요인	외 향 요 인	0.3580	**0.0976	0.0852	-0.4846**
	불 안 요 인	-0.2164**	0.2045**	0.3368*	*0.3802**
	강 정 성 요 인	-0.0670	-0.1545*	0.0293	-0.0278
	독 립 요 인	0.4629**	0.1783*	-0.1759*	-0.4077**
	초 자 아 요 인	-0.2204**	-0.3841**	-0.0021	0.3342**
	독 창 성 요 인	0.1321*	0.1256*	-0.0170	0.0845

*P<.01 **P<.001

관관계(표8)

①太陽尺度와 상관관계

太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온정성,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에서 $P<0.001$, 자아강도, 불신감, 사변성, 진보성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죄책감에서 $P<0.001$, 통제력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陽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지배성, 정열성, 사변성, 죄책감, 불안감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성, 통제력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불안요인에서 $P<0.001$, 독립요인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자아요인 $P<0.001$, 강정성요인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太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죄책감, 불안감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강도에서 $P<0.001$, 진보성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불안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독립요인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④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도덕성, 죄책감, 통제력, 불안감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3). 여성집단의 四象尺度와 성격요인 검사간의 상관관계(표9)

①太陽尺度와의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온정성,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에서 $P<0.001$, 자아강도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죄책감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이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안요인에서 $P<0.001$, 초자아요인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②少陽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죄책감, 진보성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성, 실리성, 통제력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불안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초자아요인에서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太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太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의 불안감에서 $P<0.001$, 정열성에서 $P<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외향요인, 불안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④少陰尺度와의 상관관계

少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이 도덕성, 죄책감, 통제력, 불안감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온정성, 자아강도, 정열성, 대담성에서 $P<0.001$, 지배성에서 $p<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차요인의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P<0.001$ 의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향요인, 독립요인 $P<0.001$ 의 否的 상관관계를 보였다.

3. 四象尺度의 성격유형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와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각 척도간의 점수분포를 上中下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성격유형검사의 척도별 평균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1). 太陽尺度의 성격유형검사 척도별 변량분석결과(표10)

太陽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

〈표9〉 여자집단의 四象尺度와 16PF 간 상관관계 (N=153)

16성격요인 검사		사 상 척 도			
		태양척도	소양척도	태음척도	소음척도
일 차 요 인	온 정 성	0.3277**	0.0102	0.1391	-0.3260**
	지 능	0.0780	0.0323	-0.0411	-0.0880
	자 아 강 도	0.2343*	-0.1695	-0.1353	-0.2960**
	지 배 성	0.4663**	0.0998	0.0830	-0.2292*
	정 열 성	0.4927**	0.1104	0.1883*	-0.4451**
	도 덕 성	-0.1306	-0.3275**	0.0438	0.3837**
	대 담 성	0.4104**	-0.0611	0.0526	-0.4197**
	민 감 성	-0.1142	0.0432	-0.0858	0.0863
	불 신 감	0.1422	0.0426	-0.0122	-0.0544
	사 변 성	0.1770	0.1341	0.0150	-0.0546
	실 리 성	0.0449	-0.2687**	-0.0249	0.0887
	최 책 감	-0.2424*	0.2250*	0.1801	0.3355**
	진 보 성	0.1415	0.2097	0.0084	-0.0821
	자 기 충 족 성	0.0268	0.0625	-0.1140	0.1445
	통 제 력	-0.1524	0.4485**	0.0441	0.2670**
	불 안 감	-0.1623	0.1679	0.2581**	0.3899**
이 차 요 인	외 향 요 인	0.3980**	0.0041	0.1908*	-0.4561**
	불 안 요 인	-0.2922**	0.2695**	0.2061*	0.4246**
	강 정 성 요 인	0.0135	-0.0920	0.0592	-0.0487
	독 립 요 인	0.5079**	0.0842	-0.0047	-0.3763**
	초 자 아 요 인	-0.2250*	-0.4040**	-0.0255	0.4135**
	독 창 성 요 인	0.1224	0.1490	-0.0858	-0.0247

*P<.01 **P<.001

찬가지로 내향-외향, 감각-직관, 판단-인식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사고-감정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2). 少陽尺度의 성격 유형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11)

少陽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판단-인식, 감각-직관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외의 내향-외향, 사고-감정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3). 太陰尺度의 성격 유형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 12)

太陰尺度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각각-직관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외의 내향-외향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표10〉太陽尺度의 MBTI 변량 분석

	上(N=158)	中(N=181)	下(N=174)	F	G
내향-외향	0.44 (9.88)	5.78 (10.55)	13.05 (9.37)	76.46**	上<中<下
감각-직관	7.97 (6.81)	9.40 (7.29)	10.47 (7.40)	5.04*	上<下
사고-감정	1.46 (10.10)	-0.68 (9.01)	-1.47 (9.09)	4.27	上中<下
판단-인식	-2.71 (11.93)	-0.91 (11.82)	2.76 (14.27)	8.05**	上中<下

P<0.05 *P<0.01 **P<0.001

〈표 11〉少陽尺度의 MBTI 변량 분석

	上(N=129)	中(N=204)	下(N=176)	F	G
내향-외향	3.72 (11.06)	6.67 (11.50)	7.95 (11.10)	5.38*	上<中下
감각-직관	8.02 (6.60)	9.42 (6.95)	10.19 (7.88)	3.41	上<下
사고-감정	-0.60 (8.79)	-1.55 (9.4)	1.46 (9.70)	5.04*	上<下
판단-인식	-4.36 (11.65)	-1.83 (13.33)	4.70 (11.72)	22.84**	上中<下

P<0.05 *P<0.01 **P<0.001

〈표 12〉太陰尺度의 MBTI 변량 분석

	上(N=196)	中(N=194)	下(N=124)	F	G
내향-외향	6.57 (11.64)	7.57 (11.36)	4.16 (10.62)	3.49	中>下
감각-직관	10.59 (7.5)	8.95 (6.83)	7.92 (7.13)	5.70*	上>中下
사고-감정	-0.32 (9.47)	-0.60 (9.70)	0.27 (9.01)	0.32	
판단-인식	0.74 (13.31)	-1.17 (13.08)	-0.30 (11.92)	1.08	

P<0.05 *P<0.01 **P<0.001

〈표 13〉少陰尺度의 MBTI 변량 분석

	上(N=142)	中(N=199)	下(N=173)	F	G
내향-외향	13.75 (9.57)	7.67 (10.26)	-1.20 (9.13)	95.63**	上>中>下
감각-직관	9.81 (7.41)	9.74 (7.27)	8.46 (7.01)	1.91	
사고-감정	0.12 (9.27)	-0.57 (9.37)	-0.28 (9.69)	0.22	
판단-인식	2.71 (13.91)	1.61 (12.36)	-4.76 (11.42)	17.40**	上<中下

P<0.05 *P<0.01 **P<0.001

4). 少陰尺度의 성격유형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 13)

少陰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4. 四象尺度의 성격요인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

四象尺度와 성격요인검사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각 척도간의 점수분포를 上中下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성격요인 검사의 척도별 평균차이를 변량분석하였다.

1). 太陽尺度의 성격요인검사 척도별 변량분석결과 (표 14)

太陽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차요인의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불신감, 사변성, 죄책감, 진보성, 통제력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외의 자기충족성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차요인은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외향요인, 불안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 독창성요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2). 少陽尺度의 성격요인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 15)

少陽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

찬가지로 일차요인의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사변성, 실리성, 죄책감, 진보성, 통제력, 불안감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외의 자기충족성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차요인은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불안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 독창성요인, 강정성요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3). 太陰尺度의 성격요인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 16)

太陰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차요인의 자아강도, 죄책감, 불안감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차요인은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불안요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독립요인에서도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4). 少陰尺度의 성격요인검사 척도별 변량분석 결과(표 17)

少陰尺度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는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차요인의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죄책감, 자기충족성, 통제력, 불안감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으며, 이차요인도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외향요인, 불안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표 14〉太陽尺度의 16PF 척도별 변량분석

		上(N=144)	中(N=161)	下(N=158)	F	G
일차요인	은정성	5.93 (1.96)	5.60 (1.71)	5.01 (1.67)	10.43**	上>中>下
	지능	5.48 (3.53)	5.59 (2.99)	5.42 (2.41)	0.12	
	자아강도	6.97 (1.87)	6.34 (1.70)	6.12 (1.69)	9.30**	上>中>下
	지배성	6.72 (1.73)	5.85 (1.66)	5.35 (1.80)	23.92**	上>中>下
	정열성	6.61 (1.64)	5.60 (1.41)	4.53 (1.45)	73.18**	上>中>下
	도덕성	5.33 (2.05)	5.53 (1.82)	5.92 (1.93)	3.76	上<下
	대담성	7.10 (1.64)	6.09 (1.41)	5.53 (1.34)	44.72**	上>中>下
	민감성	5.06 (1.68)	4.98 (1.58)	4.90 (1.85)	0.35	
	불신감	7.11 (1.73)	6.69 (1.70)	6.50 (1.79)	4.81*	上>中>下
	사변성	5.78 (1.67)	5.21 (1.79)	4.94 (1.88)	8.45*	上>中>下
	실리성	5.83 (2.02)	5.72 (1.75)	5.83 (1.75)	0.19	
	최책감	5.20 (1.94)	5.65 (1.78)	6.16 (2.05)	9.32**	上>中>下
	진보성	5.50 (1.10)	5.25 (1.76)	5.10 (1.78)	2.90	上>下
	자기충족성	6.44 (1.58)	5.98 (1.55)	6.24 (1.49)	3.52	上>下
	통제력	5.84 (4.00)	5.19 (1.71)	5.53 (1.84)	5.11*	上<下
	불안감	5.67 (2.01)	5.93 (1.75)	5.97 (1.99)	1.05	
이차요인	외향요인	6.01 (1.49)	5.54 (1.29)	4.77 (1.32)	31.44**	上>中>下
	불안요인	4.76 (1.63)	5.53 (1.40)	5.56 (1.56)	13.01**	上<中>下
	강정성요인	5.83 (1.49)	6.00 (1.52)	6.08 (1.69)	0.98	
	독립요인	7.11 (1.62)	6.05 (1.33)	5.43 (1.43)	49.77**	上>中>下
	초자아요인	4.83 (2.27)	5.36 (1.99)	6.01 (2.16)	11.46**	上<中<下
	독창성요인	5.76 (1.44)	5.46 (1.34)	5.39 (1.14)	3.12	上>下

*P<.01 **P<.001 P<.01

〈표 15〉 少陽尺度의 16PF 척도별 변량분석

			上(N=109)	中(N=187)	下(N=135)	F	G
일차요인	은정성		5.53 (1.83)	5.55 (1.81)	5.41 (1.81)	0.25	
	지능		5.30 (3.11)	5.52 (3.25)	5.61 (2.49)	0.34	
	자아강도		6.09 (2.00)	6.46 (1.67)	6.73 (1.71)	4.25	上>下
	지배성		6.40 (1.74)	5.93 (1.69)	5.63 (1.95)	6.05*	上>中下
	정열성		5.91 (1.72)	5.62 (1.69)	5.16 (1.68)	6.80*	上中<下
	도덕성		4.96 (1.90)	5.57 (2.00)	6.14 (1.73)	12.81**	上<中<下
	대담성		6.28 (1.80)	6.21 (1.54)	6.15 (1.51)	0.22	
	민감성		5.11 (1.70)	5.03 (1.67)	4.79 (1.74)	1.34	
	불신감		6.77 (1.78)	6.79 (1.73)	6.70 (1.78)	0.12	
	사변성		5.82 (1.88)	5.31 (1.71)	4.90 (1.80)	8.59**	上>中>下
	실리성		5.36 (1.91)	5.91 (1.87)	5.97 (1.68)	4.42	上<中下
	죄책감		6.19 (2.04)	5.77 (1.87)	5.18 (1.95)	9.34**	上中>下
	진보성		5.70 (2.14)	5.23 (1.77)	5.10 (1.66)	3.83	上>中下
	자기충족성		6.52 (1.65)	6.08 (1.53)	6.15 (1.45)	3.11	上>下
	통제력		4.28 (2.02)	5.19 (1.72)	5.94 (1.58)	29.09**	上<中<下
	불안감		5.28 (1.99)	5.92 (1.87)	5.45 (1.86)	6.52*	上中<下
이차요인	외향요인		5.46 (1.60)	5.51 (1.43)	5.29 (1.35)	1.02	
	불안요인		5.73 (1.69)	5.31 (1.47)	4.85 (1.53)	10.64**	上>中>下
	강정성요인		5.72 (1.58)	5.95 (1.51)	6.20 (1.62)	2.96	上<下
	독립요인		6.51 (1.64)	6.13 (1.55)	5.98 (1.63)	3.64	上>中下
	초자아요인		4.43 (2.25)	5.38 (2.15)	6.23 (1.84)	24.56**	上<中<下
	독창성요인		5.76 (1.39)	5.50 (1.32)	5.39 (1.23)	2.52	上>下

*P<.01 **P<0.001 P<0.01

〈표 16〉太陰尺度의 16PF 척도별 변량분석

		上(N=183)	中(N=176)	下(N=105)	F	G
일차요인	온정성	5.61 (1.87)	5.35 (1.75)	5.55 (1.80)	0.99	上<中下
	지능	5.56 (3.32)	5.40 (2.96)	5.54 (2.35)	0.13	
	자아강도	6.14 (1.86)	6.64 (1.61)	6.70 (1.85)	4.89*	
	지배성	5.90 (1.81)	6.05 (1.78)	5.87 (1.87)	0.42	
	정열성	5.57 (1.79)	5.50 (1.66)	5.69 (1.70)	0.08	
	도덕성	5.73 (1.96)	5.71 (1.93)	5.52 (1.92)	0.69	
	대담성	6.08 (1.77)	6.28 (1.41)	6.30 (1.57)	0.96	
	민감성	4.92 (1.73)	4.89 (1.72)	5.21 (1.62)	1.33	
	불신감	6.74 (1.87)	5.35 (1.81)	6.70 (1.60)	0.11	
	사변성	5.28 (1.82)	5.35 (1.81)	5.26 (1.82)	0.10	
	실리성	5.94 (1.87)	5.69 (1.82)	5.73 (1.77)	0.97	
	최책감	6.26 (1.96)	5.41 (1.82)	5.15 (1.95)	14.22**	
	진보성	5.10 (1.88)	5.47 (1.87)	5.37 (1.73)	1.88	
	자기충족성	6.14 (1.58)	6.35 (1.56)	6.11 (1.45)	1.12	
	통제력	5.13 (1.97)	5.15 (1.82)	5.40 (1.74)	0.81	
	불안감	6.49 (1.84)	5.39 (1.91)	5.23 (1.75)	18.46**	
이차요인	외향요인	5.48 (1.50)	5.30 (1.40)	5.52 (1.45)	0.99	上>中下
	불안요인	5.77 (1.63)	5.03 (1.42)	4.79 (1.51)	17.02	
	강정성요인	6.02 (1.59)	6.00 (1.54)	5.83 (1.60)	0.49	
	독립요인	5.93 (1.68)	6.37 (1.52)	6.27 (1.58)	3.54	
	초자아요인	5.46 (2.24)	5.35 (2.20)	5.44 (2.10)	0.14	
	독창성요인	5.45 (1.36)	5.59 (1.29)	5.58 (1.29)	0.55	

*P<.01 **P<0.001 P<0.05

〈표 17〉少陰尺度의 16PF 척도별 변량분석

		上(N=129)	中(N=178)	下(N=157)	F	G
일차요인	온정성	4.48 (1.64)	5.43 (1.84)	6.13 (1.72)	19.62**	上<中<下
	지능	5.60 (2.68)	5.38 (2.20)	5.53 (2.92)	0.21	
	자아강도	5.96 (1.78)	6.47 (1.67)	6.86 (1.82)	9.31**	上>中>下
	지배성	5.42 (1.83)	6.01 (1.82)	6.32 (1.69)	9.19	上<中>下
	정열성	4.60 (1.61)	5.35 (1.52)	6.54 (1.49)	58.16*	上<中<下
	도덕성	6.31 (1.90)	5.71 (1.89)	4.89 (1.80)	21.06**	上>中>下
	대담성	5.43 (1.66)	6.07 (1.46)	7.01 (1.31)	41.77**	上>中>下
	민감성	4.98 (1.82)	4.95 (1.76)	4.99 (1.55)	0.32	
	불신감	6.60 (1.88)	6.89 (1.68)	6.73 (1.74)	1.05	
	사변성	5.32 (1.95)	5.15 (1.85)	5.47 (1.65)	1.28	
	실리성	5.93 (1.93)	5.84 (1.74)	5.64 (1.85)	0.98	
	죄책감	6.64 (1.84)	5.62 (1.85)	4.98 (1.74)	24.85**	上>中>下
	진보성	5.19 (1.00)	5.28 (1.72)	5.43 (1.87)	0.59	
	자기충족성	6.52 (1.51)	6.02 (1.56)	6.17 (1.52)	4.06	上>下
	통제력	5.59 (1.95)	5.43 (1.80)	4.62 (1.73)	12.77**	上中>下
	불안감	6.73 (1.74)	5.74 (1.99)	5.29 (1.72)	22.51**	上>中>下
이차요인	외향요인	4.50 (1.31)	5.38 (1.42)	6.16 (1.22)	49.08**	上<中<下
	불안요인	6.08 (1.49)	5.22 (1.55)	4.66 (1.38)	32.68**	上>中>下
	강정성요인	5.92 (1.74)	6.02 (1.59)	5.96 (1.40)	0.15	
	독립요인	5.38 (1.57)	6.17 (1.52)	6.38 (1.44)	32.31**	上>中>下
	초자아요인	6.29 (2.12)	5.65 (2.07)	4.43 (1.98)	30.91**	上>中>下
	독창성요인	5.61 (1.12)	5.41 (1.15)	5.60 (1.55)	1.16	

*P<.01 **P<0.001 P<0.01

고찰

四象醫學이 좀 더 학문적 진보를 위하여 체질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체질진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1). 2). 3). 6). 7). 8). 9). 10). 11). 12). 13). 14). 18). 19). 23). 25). 26). 27). 28). 29). 30)

本 研究는 이러한 연구의 연속선에서 이의 논문²³⁾과 고의 연구¹⁾를 검증하고 성격유형검사(MBTI)를 추가하여 사상체질분류검사 설문지에 수록된 각尺度들의 내적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太陽尺度는 전체에서는 내향-외향, 감각-직관, 판단-인식에서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녀의 차이는 감각-직관에서 남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참고로 正的 상관관계이면 내향, 감각, 사고, 판단으로 치우쳐 음적영향을 보이고 否의 상관관계이면 외향, 직관, 감정, 인식으로 치우쳐 양적영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少陽尺度는 전체에서는 감각-직관, 판단-인식에서 否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녀의 차이는 내향-외향, 사고-감정에서 남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자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少陽尺度의 경우 남녀의 차이가 심하여 사회적 영향이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太陰尺度는 전체에서는 감각-직관에서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녀차이는 남녀 각각 아무곳에도 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

少陰尺度는 전체에서는 내향-외향, 판단-인식에서 正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남녀차이는 없었다.

참고로 성격유형검사 척도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외향성의 사람들은 주로 외적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도 사람과 대상 등 외부세계와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내향성의 사람들은 주로 내적세계를 지향하므로 그들의 인식과 판단 역시 개념이나 사상 등 자기의 내부세계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감각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외적세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또한 그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자신의 눈, 귀, 그리고 다른 감각기관들 즉 자신의 오관에 의존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직관기능을 선호하는 사람은 오관에 의해 얻어진 정보의 차원을 넘는 가능성이나 보다 심오한 의미와 전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감에 의존하여 얻어낸다. 직관은 전체를 파악하고 본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사고형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결과들은 예측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사람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중시하여 내가 그것을 싫어하던 좋아하던 상관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감정형의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더욱 초점을 두므로 인간중심의 가치에 기초를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사람은 인관관계를 좋아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남을 인정할 줄 알고 재치가 있는 편이다.

판단형의 사람은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질서있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인식형의 사람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삶을 통제하기 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결국 四象尺度와 성격유형검사(MBTI)척도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尺度는 외향형, 인식형, 직관형이다.

少陽尺度는 인식형, 직관형이다.

太陰尺度는 감각형이다.

少陰尺度는 내향형, 판단형이다.

한편 四象尺度와 성격요인검사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太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는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대담성, 불신감, 사변성, 죄책감, 진보성, 통제력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고 이차요인의 외향요인, 불안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 독창성요인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다.

少陽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는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사변성, 실리성, 죄책감, 진보성, 통제력, 불안감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고 이차요인의 불안요인, 강정성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 독창성요인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다.

太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는 자아강도, 죄책감, 불안감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고 이차요인의 불안요인, 독립요인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다.

少陰尺度는 성격요인검사의 일차요인에서는 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죄책감, 자기충족성, 통제력, 불안감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고 이차요인의 외향요인, 불안요인, 독립요인, 초자아요인에서 有意한 결과를 보였다.

참고로 성격요인검사의 이차요인들의 의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외향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며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기회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수줍어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피하는 편이다.

불안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강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요구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조차도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일상생활에서 별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중요한 업적을 이룩할 수가 있다.

감정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감정보다는 오히려 사실 또는 문제 자체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대담하고 강인하며 결단력이 있고 모험심이 강하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신사처럼 온화하고 점잖으며 예술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립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공격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며 대담하고 신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러한 행동이 최소한 받아들여질 상황을 추구하며 또한 앞장서기를 잘한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남들에게 의존하고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며 수동적 성격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들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거나 요구하며,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편이다.

초자아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도덕적 통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률을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들이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기대 혹은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다.

독창성 요인에서 높은 점수의 사람은 사변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실험적인 경향이 강하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제적인 사람들이다.

결국 四象尺度와 성격요인검사(16PF) 척도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太陽尺度는 외향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다.

少陽尺度는 불안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나고 강정성요인 초자아요인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다.

太陰尺度는 불안요인에서 높은 점수가 나타난다.

少陰尺度는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에서 높은 점수

가 나타나고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낮은 점수가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의 차이가 약간 보이는 데 특히 少陽尺度에서 남녀차이가 크게 나타나 남자에서 보였던 강정성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이 여자에게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太陽人은 (性質長於疏通而 材幹能於交遇)라 하여 무슨일이나 막힘이 없이 타트키게 처리하고, 材幹은 친구들과 사귀는 일에 有能하다고 하고 (性質疏通又有果斷)이라하여 남들과 잘 疏通하고 果斷性이 있다고 한 內容^{22), 24)}으로 上記의 성격유형검사(MBTI)와 성격요인검사(16PF)의 분석과 어느 정도 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太陽尺度의 內的信賴度を 확인해 볼 수 있다.

少陽人은 (長於剛武而 材幹能於事務)라하여 성질이 대쪽같고 곧고 단단하며 材幹은 공사간에 이해를 초월하여 처리하는데 有能하다고 했으며, 또한 (剽銳好勇) 즉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경솔하게 날래며 용맹을 좋아한다는 內容^{22), 24)}으로 이것 역시 上記분석과 어느 정도 상통하고 있으며 少陽尺度의 內的信賴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불안요인이 太陰尺度의 경우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少陰尺度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太陰人은 (長於成就而 材幹能於居處)라 하여 무슨 일이나 착수한 것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인내심과 지구력이 강하다. 재간은 일정한 곳에 오래 참고 견디며 거처하는데 유능하다고 했고(起居有儀而 修整正大)라 하여 몸가짐이 威儀가 있고 무슨일에도 잘 가다듬으며 公明正大한 태도를 갖는다는 內容^{22), 24)}이다. 이는 上記분석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자기보고의 한계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少陰人은 (長於端重而 材幹能於黨與)라 하여 端正하고 沈着하여 무슨일이나 침착하게 생각하고 材幹은 조직과 처리하는데 유능하다고 했고(體任自然而 簡易少巧)라 하여 몸가짐은 자연스럽고 簡易하며 잔

재주가 있다는 내용으로 上記분석과 어느 정도 상통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의 太陽尺度和 少陽尺度的 陽人尺度和 太陰尺度和 少陰尺度的 陰人尺度간에는 성격유형검사와 비교분석해 보면 陽人尺度는 否의 관계를 보여 陽의 성향을 보이며 陰人尺度는 正的관계를 보여 陰人성향은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太陽尺度和 少陽尺度간에도 직관형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太陽尺度에서는 외향형 성향이 뚜렷했고 少陽尺度에서는 인식형 성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고 四象尺度和 성격요인 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陽人尺度의 경우 초자아요인이 낮은 점수를 보이는(즉 도덕성이 낮음) 경향이 뚜렷했고 陰人尺度는 초자아요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陽人尺度에서도 太陽尺度는 외향성 성향이 강하고 少陽尺度 불안요인 성향이 나타났다. 陰人尺度에서의 太陽尺度和 비교하여 少陰尺度에서 내향적이며 초자아요인이 높고 독립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이의 논문²³⁾ 고의 연구¹⁾보다도 높은 유의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피검자수가 많았고, 여자의 경우, 상당수 학력이 고졸이상이 많았기에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추정되어 일반환자에 적용하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항개발과 자기보고적 진단방법 이외에 객관적 진단과 한의사의 임상적진단 방법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本 研究는 四象醫學에 있어서 임상적 기초가 되는 사상체질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여러 단계를 거쳐 제작된 사상체질 분류검사 설문지에 대하여 16PF(성격요인검사)와 MBTI(성격유형검사)를 이용한 준거타당화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사상체질 분

류검사의 진단 정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도되었다. 설문지의 응답자료를 수집하여 통계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四象척도와 성격요인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 1). 太陽尺度에서 외향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이 높게,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 2). 少陽尺度에서 불안요인, 독립요인, 독창성요인이 높게, 강정성요인, 초자아요인이 낮게 나타났다.
- 3). 太陰尺度에서 불안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 4). 少陰尺度에서 불안요인, 초자아요인이 높게, 외향요인, 독립요인에서 낮게 나타났다.
- 5). 초자아요인에서 陰陽尺度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四象尺度와 성격유형 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 1). 太陽尺度는 외향형, 인식형, 직관형이다.
- 2). 少陽尺度는 인식형, 직관형이다.
- 3). 太陰尺度는 감각형이다.
- 4). 少陰尺度는 내향형, 판단형이다.
- 5). 陽人尺度와 陰人尺度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3. 四象체질분류 검사와 성격요인검사 및 성격유형 검사 척도들을 함께 사용한 결과 진단 정확률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心理검사방법이 체질분류방법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的 결과로 보아 설문방식을 통한 四象체질 분류검사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또한 자기보고식의 설문방식외에 다른 객관적 진단과 의사의 임상적 진단방법이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高炳熙; 四象體質別 性格 要因分析에 관한 研究, 大韓漢醫學會志 通卷 26號가1993.

2.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 辨證에 對한 少考, 大韓漢醫學會志 9號, 1985. 4.

3. 權英植; 四象鑑別法에 對하여, 醫林 97號, 1973.

4. 金達來; 이제마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의 성립에 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 2, No. 1, 1990.

5. 김문준; MBTI 안내서, 한국심리 검사 연구소, P. 2-12, 1966. 1,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6. 김문성; 四象體質 鑑別法과 經驗方公開, 대한한의학회보 21호, P. 40-41, 1995. 1.

7. 김선호;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경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8. 김수범; 사상체질 감별을 위한 전문가 시스템의 지식 베이스 構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9. 나기성; 사상감별과 체질침, 생약과 한의학 30호, 31호. 1978.

10. 盧經鎬; 체질 약물을 이용한 O-ring Test에 의한 체질감별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 5, No. 1, 1993.

11. 朴爽彦; 사상두부촉진법, 의림 147호, 1982.

12. 朴寅商; 四象鑑別에 對한 少論, 火曜漢方 1호, 1992.

13. 卞株然; 四象體質 鑑別法, 科學教育208, 209호, 1982. 1.

14. 成守廣; 四象醫學 體質鑑別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8.

15. 宋一炳; 이제마 철학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의학 성립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 3. No. 1, 1991.

16. 宋正模; <生命論>을 中心으로한 이제마의 사상관에 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 4, No. 1, 1992.

17. 염태호, 김정규;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 연구소, P.7, 116-132, 1990.

18. 오세정; 동의수세보원에서 본 사상인 체질 감별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19. 오세정; 사상인의 체질 감별법연구-동의수세보원을 中心으로-경희대학교 박·석사학위 논문집 3호, P,569, 1980.

20. 尹絲淳; 東洋思想과 韓國思想, 을유문화사, P.247, 1993.9.

21. 이영준; SPss/pc+ 를 이용한 다변량 분석, 서울 도서출판 석정 P.141-166, 275-303, 387-438, 1991.6.

22. 이을호, 홍순용; 사상의학원론, 행림출판, P.134-137, 1985-

23. 이정찬; 사상체질 분류검사의 준거 타당화 연구(성격요인 검사-16PF-와의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24. 李濟馬; 동의수세보원, 행림출판, 1986.

25. 정성충; 사상체질 감별에 대한 객관적 연구, 의림 151호, 1982.9.

26. 정원조; 사상체질 감별에 있어서 한약을 이용한 오-링 테스트 결과보고, 대한한의학회지 통권 26호, 1993.

27. 韓熙錫; 사상체질 감별, 葯業新聞(1-5), 1971,7.26.

28. 韓熙錫; 내가 보는 감별법, 火曜漢方 3호, 1973.

29. 韓熙錫; 내가 보는 사상감별법, 의림 49호, P.24, 1965.

30. 허만희; 사상인의 형태학적 도식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